

'인공지능 말벗 인형' 치매환자 돌본다

전주시, 경증치매 노인 30명에게 돌봄인형 '초롱이' 제공... 정서 안정·돌봄공백 해소 등 기대

전주시가 치매 노인의 말벗이 돼줄 돌봄 인형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돕고 증상 악화도 예방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3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치매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AI) 말벗 돌봄인형 '초롱이' 입양식을 가졌다.



전주시보건소는 3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치매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AI) 말벗 돌봄인형 '초롱이' 입양식을 가졌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노인 30명에게 입양된 돌봄인형 '초롱이'는 △개인 맞춤형 알람을 통한 약 복용 시간 안내 등 건강생활 관리 △감성 대화를 통한 정서 안정 지원 △인지 강화를 돕기 위한 퀴즈와 노래 등의 콘텐츠 제공 △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매환자가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위험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제센터에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입양식은 돌봄인형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경증 치매환자들이 참석할 가운데 김신선 보건소장은

의 인사말과 돌봄인형 전달식, 기념 촬영, 사용법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향후 경증 치매환자들이 '초롱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봄인형 전용앱(APP)을 기반으

로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이용자를 매칭해 통합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각 가정을 방문해 사용 현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돌봄인형

'초롱이'가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독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불 하트' 놀이, 화재 위험성 경고

전주덕진소방서, 화재 실화죄·화상 위험 등 금지 당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불 하트' 놀이의 금지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눈 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불 하트' 놀이의 위험성을 알리며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 하트' 놀이에 사용되는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과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 불이 순식간에 확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불이 머리카락 등 신체에 옮겨붙게 되면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 '불 하트' 놀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경우 '단순실화죄' 또는 '중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단순실화죄의 경우 1500만 원의 벌금, 중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호기심에 무심코 시작한 불 하트 놀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 하트 놀이가 화재로 번지게 되면 청소년이라도 형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아람 기자

전북경찰청, 재·보궐선거 비상근무 강화

사전투표함·투표용지 보관 장소 순찰 강화·투표 당일 경찰력 최대 배치 등 경비 만전

전북경찰이 오는 4월 5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를 대폭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전국 유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대비해 지난달 23

부터 선거지원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당일까지 비상 경계강화를 발령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지난 사전투표 마감 이후로도 사전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24시간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특히 4월 5일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65개소, 개표소 2개소 및 투표함 회송 노선까지 경찰인력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관기동대까지 예비대로 편성하는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 동원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 전주완산서·군산서와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현장상황반 및 당직기동대의 빈틈없는 신고·현장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사업단 출범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 체계적 관리 위해 시범운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새만금유역의 체계적인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시범운영 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점오염원 관리는 개별사업 및 시설 위주로 진행되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청에서는 비점오

염관리 사업단을 구성해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단위 거버넌스 운영 등 실천역량 중심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만경강·동진강 등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비점오염관리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단의 주요업무는 △비점오염원 감시시설의 통합 운영·관리 및 기술 지

원 △양분관리·물꼬관리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단위 실천 거버넌스 구축·운영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이 다.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규설치와 수질개선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유역단위로 통합 운영·관리하고, 저감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지역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경작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실천 거버넌스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타지역 우

수사례 조사 및 지역상황을 고려해 비점오염저감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에서는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사업단'을 올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파견 인력(2명)이 합류해 본격 운영되며,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 유형별 최적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운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 관리단장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사업단을 운영해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저감활동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아 기자

전주시,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추진

전주시가 1인 가구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의 거주지를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가정용 CCTV(40가구)와 안심장비(80가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중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이다. 가정용 CCTV의 경우 움직임 감지 센

서가 내장된 도어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관 앞 상황 실시간 확인 △배회자감지 및 알람 △긴급 출동 요청 △가족·지인에게 위치 공유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외부에서 침문 여는 것을 방지하는 '침문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장비 3종 세트 중 신청자 주거 여건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 설치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는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로 문의하면 된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완산구,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3년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구는 이날 마음나눔 상담센터와 의료급여 유관기관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 공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원활한 의뢰 방안, 마음나눔 상담센터의 주요 서비스, 연계대상자 사후관리,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유은희 마음나눔 상담센터장은 이차

리에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마음건강 케어플랜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민·관 정신건강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